|  |  |
| --- | --- |
| **Program / Project Name:** | Modern C++ |
| **Checklist / Template Completed by:** | TBD |
| **Date Completed:** | Click here to enter a date. |

**Modern C++**

C++11, C++14

**Detailed Revision History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Rev** | **Date** | **Editor(s)** | **Description of change** |
| A.0 | 13-AUG-2020 | Sang-Gu Kang | Initial Draft |
|  |  |  |  |
|  |  |  |  |
|  |  |  |  |
|  |  |  |  |
|  |  |  |  |
|  |  |  |  |

**Table of Contents**

[1 변수 4](#_Toc48254445)

[1.1 초기화 4](#_Toc48254446)

[1.1.1 보편적 초기화 4](#_Toc48254447)

[2 자료형 4](#_Toc48254448)

[2.1 auto 4](#_Toc48254449)

[3 API 5](#_Toc48254450)

[3.1.1 String 5](#_Toc48254451)

# 변수

## 초기화

### 보편적 초기화

C++에는 초기화 방법이 너무 많아서 많은 혼동을 가져왔다. 각 초기화 방법들은 서로 다른 형식을 사용해 왔다. 그동안 혼란의 극치였던 초기화 방법을 통일한 것이 보편적 초기화 방법이다.

|  |
| --- |
| int i {100}; //int i = 100;과 동일  string s {“hello”}; //string s = “hello”;와 동일 |

# 자료형

## auto

C++ 이전에 auto는 단순히 자동 변수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다. 즉 지역 변수가 함수 안에서 선언되었다가 함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였다.

double d = 1.0;  
변수 d를 double로 선언했지만, 컴파일러는 이미 초기값 1.0을 보고 변수 d가 double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. 이런 경우 자료형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auto이다. 이것을 자동 타입 추론(automatic type deduction)이라고 부른다.  
auto d = 1.0; // 1.0은 double형리터럴이어서 d의 자료형은 double이 된다.

|  |
| --- |
| auto add (int x, int y) {  return x + y;  }  int main()  {  auto sum = add(5, 6); // add()는 정수값을 반환하므로 sum은 int형이 된다.  return 0;  } |

앞으로 초기값은 줄 수 있지만 자료형이 생각나지 않으면 일단 auto를 사용해 보자.

# 생성자

## 초기화 리스트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 |  | C++14 / C++11 |
| Time(int h, int m) //생성자  {  hour = h;  minute = m;  } | -> | Time(int h, int m) : hour(h), minute(m)  {  }  Time(int h, int m) : hour{h}, minute{m}  {  }  초기화 리스트와 디폴트 인수를 동시 사용  Time(int h=0, int m=0) : hour{h}, minute{m}  {  } |

# API

### String

|  |
| --- |
| to\_string() |
|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 |
| string s1 {apple};  string s2;  s2 = s1 + “ “ + to\_string(10) + “개”;  cout << s2 << endl; |